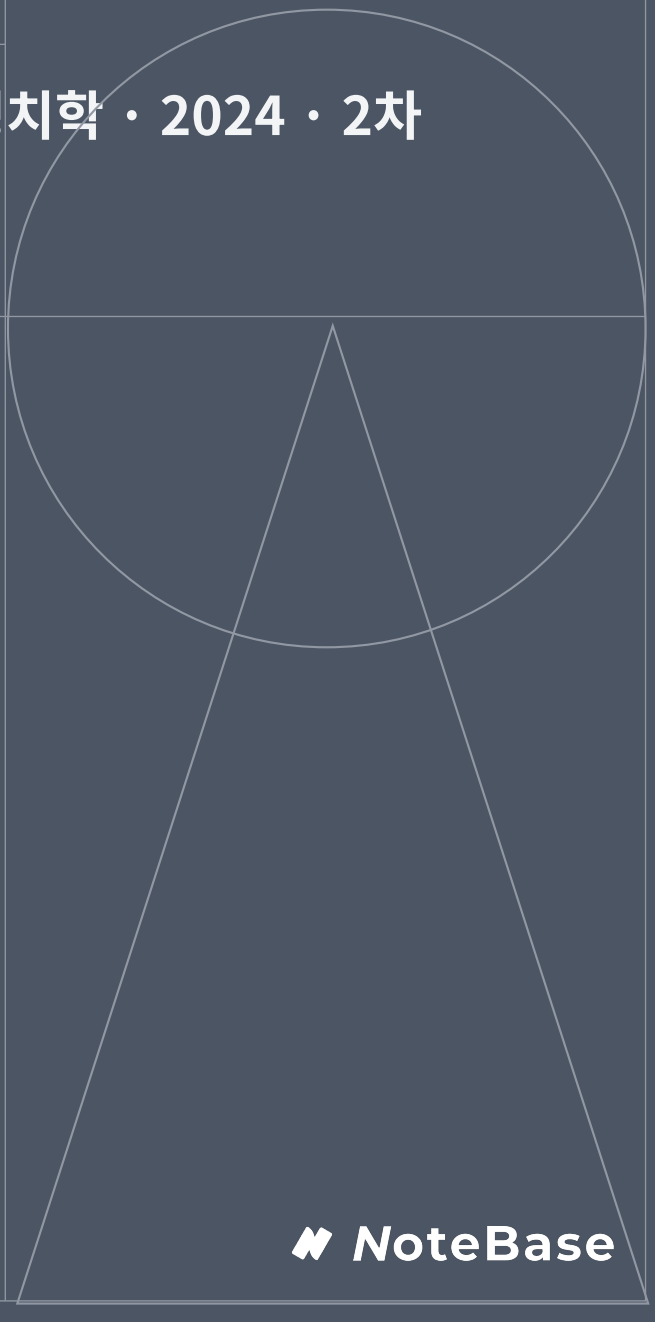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4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4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24 · 2차

문 1. 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왈츠(Waltz)는 권력의 극대화를 강조하고, 미어샤이머(Mearsheimer)는 안보의 극대화를 강조한다.

② 모겐소(Morgenthau)의 전통적 현실주의와 왈츠의 신현실주의 모두 국가의 단일성과 통합성을 가정하고 국내적인 특수성을 무시한다.

③ 모겐소의 전통적 현실주의는 주로 귀납적으로 접근하나, 왈츠의 신현실주의는 연역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④ 신고전현실주의는 신현실주의의 구조 결정론적 시각을 비판하며 개인이나 국가-사회 관계 등에 대한 연구를 복원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실주의의 하위 이론과 대표 학자를 연결해 각 이론이 무엇을 극대화하거나 무엇을 설명 단위로 삼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모겐소의 전통적 현실주의는 인간 본성과 권력정치를 중시하며 역사적·경험적 서술이 강하다.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과 구조를 중심에 두고 국가의 생존과 안보 추구를 설명한다.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는 강대국이 가능하면 더 많은 힘을 추구해 패권에 접근하려 한다고 본다.
신고전현실주의는 구조만으로는 외교정책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국내정치, 지도자 인식, 국가-사회 관계를 함께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월츠와 미어샤이머의 강조점이 뒤바뀌었다. 월츠는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가 우선 생존과 안보를 확보하려는 경향을 본다. 반면 미어샤이머는 안보에 머무르지 않고 권력 극대화와 지역패권 추구를 강조한다. 틀린 표현은 "월츠는 권력의 극대화, 미어샤이머는 안보의 극대화"이고, 올바르게는 "월츠는 안보·생존의 확보, 미어샤이머는 권력 극대화"이다.
2번: O. 전통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는 모두 국가를 국제정치의 핵심 행위자로 보고 국내정치의 세부 차이보다 대외적 힘의 경쟁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선지는 두 이론이 국내 변수보다 국가 단위의 행동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묻는 진술로 볼 수 있다.
3번: O. 모겐소의 전통적 현실주의는 역사, 외교경험, 인간 본성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이 강하고, 월츠의 신현실주의는 체제구조에 관한 가정에서 출발해 국가행동을 설명하는 연역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귀납 대 연역의 대비는 전통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의 방법 차이를 잘 짚은 것이다.
4번: O. 신고전현실주의는 신현실주의가 구조 변수만으로 국가행동을 설명하는 데 치우쳤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체제 압력이 외교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도자 인식, 국가역량, 국가-사회 관계 같은 중간 변수를 다시 끌어온다.

오답 포인트

월츠와 미어샤이머는 모두 현실주의 계열이어서 "힘을 중시한다"는 공통점만 기억하면 1번처럼 극대화 대상이 뒤바뀐 선지에 속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두 사람 모두 권력을 말한다는 피상적 유사성을 이용해 방어적 현실주의와 공격적 현실주의를 바꿔 놓은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실주의 계열 문제는 학자 이름만 보지 말고 무엇을 직접 설명하는지와 무엇을 극대화하는지를 먼저 본다. 월츠는 체제구조와 생존, 미어샤이머는 권력 극대화, 신고전현실주의는 구조에 국내 변수를 더한다는 기준으로 자르면 빠르게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월츠는 생존, 미어샤이머는 패권, 신고전현실주의는 구조+국내변수이다.

NoteBase

문 2. 퍼트남(Putnam)의 양면게임(two-level gam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 협상국 간의 윈셋(win-set)의 교집합이 작을수록 합의에 도달하기가 용이하다.

② 국가 간의 행동패턴을 설명함에 있어서 국내변수와 국제변수의 연계성을 전제한다.

③ 왈츠의 국제체제이론에 대해 비판적이다.

④ 크기가 작은 윈셋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협상에 유리하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퍼트넘의 양면게임론에서 윈셋, 국내정치와 국제협상의 연계, 그리고 작은 윈셋의 협상효과를 정확히 연결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퍼트넘의 양면게임론은 국제협상이 국가 간 수준(Level I)과 국내 비준 수준(Level II)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본다.
윈셋은 국내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안의 범위이며, 협상국들의 윈셋이 겹치는 부분이 넓을수록 실제 합의 가능성은 커진다.
다만 한 정부의 자국 윈셋이 너무 작지 않은 범위에서 작을수록 국내 제약을 근거로 상대에게 양보를 덜 하게 되어 협상력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국가를 단일행위자로 보는 월츠식 구조현실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연결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윈셋의 교집합이 작을수록 합의에 도달하기가 용이하다"이다. 양면게임론에서는 협상국들의 윈셋 교집합이 클수록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안이 많아져 합의가 쉬워진다. 올바르게는 "윈셋의 교집합이 클수록 합의에 도달하기가 용이하다"이다.
② O: 양면게임론은 국가 간 행동을 국제체제 변수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국내 비준 제약과 국제협상 결과가 서로 연결된다고 본다. 따라서 국내변수와 국제변수의 연계성을 전제한다.
③ O: 퍼트넘은 국가를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넘어서 국내정치의 제약을 함께 봐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월츠의 국제체제 중심 설명에 비판적이다.
④ O: 한 정부의 윈셋이 작으면 "국내적으로 더는 받을 수 없다"는 제약을 내세울 수 있어 협상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윈셋이 지나치게 작으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한계가 함께 존재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합의 가능성"과 "협상력"을 뒤섞은 함정이다. 양면게임론에서 작은 윈셋은 협상력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협상국 윈셋의 교집합이 작아지면 합의 가능성 자체는 낮아진다. ④의 내용을 ①의 합의 조건으로 잘못 옮기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양면게임 문항은 먼저 "무엇을 묻는지"를 구분하면 된다. 합의 성사 가능성을 묻으면 윈셋의 교집합 크기를 보고, 협상력의 유불리를 묻으면 자국 윈셋의 크기와 국내 비준 제약을 본다. 또한 퍼트넘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를 강조한다는 점으로 월츠와 구별된다.

암기 포인트

퍼트넘은 "교집합이 크면 합의가 쉽고, 자국 윈셋이 작으면 협상력은 세질 수 있다"는 구조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3. 오간스키(Organski)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체제에서 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와 인식을 같이 하지만,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가 아니라 지배국 중심의 국가 간 위계적 층위와 피라미드 조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현실주의와 차이가 있다.

② 지배국은 국제체제의 근본적인 행동규칙과 규범을 만들어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③ 세력전이가 가능한 요인은 현존 질서에 대한 중견국과 약소국의 만족 여부가 중요하며, 이들 나라의 잠재력 수준, 부상 속도, 지배국과의 친밀성 등이 전쟁 발발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④ 두 차례의 세계대전 시기에 발생한 영국과 독일의 충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으로부터 지배국 지위를 획득한 미국, 현재 미·중 간 갈등 관계 등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오간스키의 세력전이 이론에서 국제체제를 위계질서로 보고, 전쟁 가능성을 불만족한 부상 강대국의 세력 접근으로 설명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오간스키: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라기보다 지배국이 정점에 있는 위계적 질서라고 본다.
세력전이: 전쟁 위험은 현존 질서에 불만족한 도전국이 지배국에 근접할수록 커진다고 본다.
핵심 변수: 단순한 세력 증가 자체보다 도전국의 불만족과 세력 격차 축소의 결합이 중요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세력전이 이론은 현실주의처럼 힘의 분포를 중시하지만, 국제체제를 무정부 상태로만 보지 않고 지배국 중심의 위계적 구조로 본다. 현실주의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짚은 설명이므로 옳다.
② O: 지배국은 국제질서의 기본 규칙과 규범을 만들고 유지하는 중심 행위자라고 본다.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부여하는 역할을 지배국에 둔 설명은 세력전이 이론과 맞는다.
③ X: 틀린 부분은 "중견국과 약소국의 만족 여부가 중요"하다는 표현이다. 세력전이 이론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은 현존 질서에 불만족한 부상 강대국이 지배국과 세력 균형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올바르게는 도전국의 불만족, 성장 속도, 잠재력, 지배국과의 세력 격차 축소가 중요하다.
④ O: 영국과 독일의 충돌,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지배국 지위 이전, 미·중 경쟁처럼 지배국과 부상국의 관계 변화를 설명하는 데 세력전이 이론이 자주 적용된다. 대표 적용 사례를 든 설명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누가 불만족한가'를 바꿔 놓은 선지이다. 세력전이 이론의 초점은 중견국·약소국 일반이 아니라 지배국에 도전할 정도로 성장한 부상 강대국의 불만족에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력전이 이론 문제는 먼저 국제체제를 위계질서로 보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전쟁 조건이 '불만족한 도전국의 세력 접근'인지 점검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오간스키는 위계질서, 세력전이는 불만족한 부상 강대국의 추격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4. 국제안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실주의는 항구적인 안보 불안 문제를 강조한다.

② 구성주의는 무정부성의 성격이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해진다고 주장한다.

③ 신현실주의는 평화와 안정의 달성에 국제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부인한다.

④ 신자유제도주의는 현실주의의 가정을 모두 거부하고, 제도가 국가 사이의 안보 경쟁 위험을 완화하는 협력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현실주의, 구성주의, 신현실주의, 신자유제도주의가 국제안보를 어떻게 보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현실주의는 무정부성과 권력 경쟁 때문에 안보 불안이 반복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권력, 생존, 안보 딜레마이다.
구성주의는 무정부성의 의미가 국가들의 상호작용과 공유된 관념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정체성, 규범, 상호주관성이다.
신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구조와 무정부성을 중심으로 국가 행동을 설명하며 국제제도의 평화 효과에 회의적이다. 키워드는 체제구조, 상대적 이익, 제도 회의론이다.
신자유제도주의는 무정부성과 합리적 국가라는 전제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면서도 국제제도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키워드는 협력, 절대적 이익, 제도 활용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를 무정부적 경쟁 질서로 보고,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안보 불안이 지속된다고 본다. 따라서 항구적인 안보 불안 문제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맞다.
2번 O: 구성주의는 무정부성이 고정된 자연상태가 아니라 국가들이 어떤 정체성과 규범을 만들고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무정부성의 성격이 상호작용을 통해 정해진다고 보는 설명은 맞다.
3번 O: 신현실주의는 국제제도가 있어도 무정부성과 힘의 분포가 더 근본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평화와 안정의 달성에서 국제제도의 중요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다.
4번 X: 틀린 부분은 "현실주의의 가정을 모두 거부하고"이다. 신자유제도주의는 현실주의의 모든 가정을 버리는 이론이 아니라, 무정부성·국가 중심성·합리성 같은 전제를 상당 부분 공유하면서도 제도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신자유제도주의는 현실주의의 일부 가정을 공유하되, 제도가 국가 사이의 안보 경쟁을 완화하는 협력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신자유제도주의를 자유주의 일반론으로 뭉뚱그려 현실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이라고 보면 4번을 맞는 선지로 오해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제도에 대한 긍정 여부가 아니라 현실주의의 기본 전제를 어디까지 공유하는지를 묻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정치 이론 비교 문제는 먼저 무정부성을 어떻게 보는지, 국가와 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협력 가능성을 어떤 조건에서 인정하는지를 차례로 대조하면 판단이 선명해진다. 특히 "모두 거부한다" 같은 전면 부정 표현은 실제 이론의 절충적 성격과 어긋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현실주의는 힘과 불안, 구성주의는 규범과 정체성, 신현실주의는 체제구조, 신자유제도주의는 무정부성 아래의 제도 협력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5. 국제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주의는 국가들이 가치관과 정체성을 공유함으로써 국제협력이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② 패권안정론에서는 국제협력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유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패권국이 존재할 때 국제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③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제도를 통해 국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④ 현실주의는 국가들이 상대적 이득이 아니라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협력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의 판단 기준, 특히
구성주의·패권안정론·신자유제도주의·현실주의의 협력 조건과 이익 개념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성주의는 국가의 이익과 행동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공유된 규범, 가치, 정체성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패권안정론은 국제질서를 유지할 능력과 비용부담 의사를 가진 패권국이 있을 때 협력이 더 쉽게 유지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신자유제도주의는 무정부상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제제도가 정보 제공, 거래비용 감소, 감시 기능을 통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실주의는 국가가 안보와 힘을 중시하며 타국보다 얼마나 더 많이 얻는지라는 상대적 이득에 민감하므로 협력이 쉽게 지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구성주의는 물질적 힘만이 아니라 규범, 가치, 정체성의 공유가 국가 행동을 바꾼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들이 정체성과 규범을 공유할수록 협력이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② O
패권안정론은 국제공공재 제공과 질서 유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패권국이 존재할 때 국제협력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선지는 패권국의 존재와 비용부담 능력을 함께 언급하므로 옳다.

③ O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제도가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상호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배신 가능성을 낮춘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제도를 통해 국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상대적 이득이 아니라 절대적 이득을 중시"라는 표현이다. 현실주의는 절대적 이득보다 상대적 이득에 더 민감하므로, 상대국이 더 많이 이익을 얻는 상황을 경계해 협력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절대적 이득을 더 중시하며 제도와 상호의존 속 협력 가능성을 크게 보는 쪽은 자유주의 계열 설명에 가깝다.

오답 포인트

④는 협력이 어렵다는 결론 자체는 현실주의와 맞지만, 그 이유를 절대적 이득으로 바꿔 놓은 점이 함정이다. 현실주의는 상대적 이득, 신자유제도주의는 절대적 이득에 더 주목한다는 대비를 뒤집으면 쉽게 틀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협력 이론 문제는 먼저 협력의 근거가 무엇인지로 분류하면 풀린다. 정체성과 규범이면 구성주의, 패권국의 질서 제공이면 패권안정론, 국제제도의 조정 기능이면 신자유제도주의, 상대적 이득 경쟁이면 현실주의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구성주의는 정체성, 패권안정론은 패권국, 신자유제도주의는 제도, 현실주의는 상대적 이득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6. 국제정치사상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루소(Rousseau)는 『전쟁상태』에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무정부적인 체제라고 주장했다.
ㄴ. 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군주론』에서 30년 종교전쟁을 체험하고 국가 간 관계에서 이익과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ㄷ. 그로티우스(Grotius)는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유럽협조체제 붕괴 직후에 국제법과 국가 연합체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ㄹ. 칸트(Kant)는 『영구평화론』에서 이성적 인간과 공화정 및 국가연합에 의한 영구평화론을 주장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루소, 마키아벨리, 그로티우스, 칸트의 국제정치사상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루소: 인간 본성 자체보다 사회제도와 무정부적 상태가 갈등과 불안을 키운다고 본다.
마키아벨리: 이탈리아의 분열과 전쟁을 배경으로 군주의 권력 유지, 국익, 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로티우스: 주권국가 사이에도 자연법과 만민법이 적용된다는 국제법적 질서를 정초한다.
칸트: 공화정과 자유국가들의 연합을 통해 영구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이 틀려서 오답이다. 루소는 국제적 전쟁상태의 공포와 불안을 인간의 타고난 악성보다 무정부적 구조와 사회적 조건에서 찾았다. 반면 ㄴ의 틀린 표현은 '30년 종교전쟁을 체험하고'이다. 마키아벨리는 30년전쟁 이전 인물이며, 올바르게는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분열과 전쟁을 배경으로 권력과 국익을 강조했다.
② O: ㄱ과 ㄹ이 모두 옳다. ㄱ은 루소의 인간관과 국제적 무질서 인식을 반영한다. ㄹ도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정확히 짚은 것으로, 이성적 인간, 공화정, 국가연합의 결합이 평화의 조건이라는 설명이 맞다.
③ X: ㄴ과 ㄷ을 묶었기 때문에 오답이다. ㄴ은 마키아벨리를 30년전쟁과 연결한 점이 틀리다. ㄷ의 틀린 연결은 '국가 연합체 등의 중요성'을 그로티우스의 핵심 주장처럼 적은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그로티우스는 국제법과 국가 간 법질서를 강조했고, 국가연합에 의한 영구평화론은 칸트의 주장이다.
④ X: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공화정과 국가연합을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그로티우스를 국가연합론의 대표 사상가로 연결한 부분은 부정확하며, 올바르게는 그로티우스는 국제법 질서의 사상가이다.

오답 포인트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 그로티우스의 국제법, 칸트의 국가연합을 같은 근대 국제정치 사상으로 뭉뚱그리면 키워드가 쉽게 뒤섞인다. 특히 '국가연합'은 칸트, '국제법 질서'는 그로티우스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상가 문제는 인물명 뒤에 대표 키워드를 바로 붙여 판별하면 된다. 루소는 무정부적 구조와 불안, 마키아벨리는 권력과 국익, 그로티우스는 국제법, 칸트는 공화정과 국가연합으로 연결하면 조합형 선택지도 빠르게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그로티우스는 국제법, 칸트는 국가연합, 마키아벨리는 권력정치, 루소는 무정부적 구조이다.

NoteBase

문 7. 구조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레닌(Lenin)은 『제국주의론』에서 가장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고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식민지에 금융자본을 수출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실행한다고 주장했다.
ㄴ. 월러스타인(Wallerstein)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에 기초하여 근대 세계체제가 15세기 무렵 유럽에서 본격 시작했고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ㄷ. 종속이론은 남미의 저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저발전된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수출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ㄹ. 그람시(Gramsci)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지배층의 '헤게모니'가 작동하여 피지배층의 '동의'를 가져오는 영역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조주의 계열 이론가와 대표 주장, 그리고 종속이론의 발전 전략 인식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레닌: 제국주의를 독점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보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고이윤을 위해 금융자본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설명한다.
월러스타인: 근대 세계체제는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의 위계적 분업 구조이며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종속이론: 저발전은 세계 자본주의 구조 속 종속의 결과라고 보며, 주변부의 자립적 발전이나 수입대체 산업화를 중시한다.
그람시: 시민사회를 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작동하여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조직하는 공간으로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은 옳지만 ㄴ이 틀려서 조합 전체가 틀리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금융자본의 수출과 식민지 분할을 설명하므로 ㄱ은 맞다. 반면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에서 출발하는 이론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계적 분업 구조에서 출발한다. 틀린 표현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에 기초하여'이고, 올바르게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와 분업에 기초하여'이다.
2번 O: ㄱ과 ㄹ이 모두 옳은 조합이다. 레닌은 금융자본 수출을 제국주의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보았고, 그람시는 시민사회를 헤게모니를 통해 동의를 조직하는 영역으로 파악하였다.
3번 X: ㄴ과 ㄷ이 모두 틀려서 조합 전체가 틀리다. ㄴ은 월러스타인의 이론 근거를 현실주의식 무정부성과 혼동한 것이고, ㄷ은 종속이론의 발전 전략을 반대로 적은 것이다. 틀린 표현은 '수출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이고, 올바르게는 '대외 종속을 완화하는 자립적 발전 또는 수입대체 산업화를 중시한다'이다.
4번 X: ㄹ은 옳지만 ㄴ이 틀려서 조합 전체가 틀리다. ㄴ이 빠지고 ㄱ이 들어가야 하므로 옳은 조합은 ㄱ, ㄹ이다.

오답 포인트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을 현실주의의 무정부성과 연결하거나, 종속이론을 수출 주도 성장론으로 오인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구조'라는 공통어 때문에 서로 다른 구조주의 계열 이론의 핵심 출발점을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명이나 이론명이 보이면 먼저 대표 연결어를 대입해 판단한다. 레닌은 금융자본 수출, 월러스타인은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종속이론은 종속적 저발전 비판, 그람시는 헤게모니와 동의 조직으로 연결하면 조합형 선지도 빠르게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레닌=금융자본 수출, 월러스타인=세계체제 분업, 종속이론=수출주도 비판, 그람시=시민사회 헤게모니이다.

NoteBase

문 8. 국제기구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르크스주의는 국제기구가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장과 공고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한다.

②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들 간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정보를 제공하며 기대보수를 최대화함으로써, 국가들이 협력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③ 현실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들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며 작동하는 제도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 얻는 이익은 국가마다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④ 구성주의는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규범, 규칙, 행위자를 정의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마르크스주의, 신자유제도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의 핵심 관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마르크스주의: 국제기구는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재생산하는 장치로 이해된다. 키워드는 자본주의의 확장, 헤게모니, 불평등 구조이다.
신자유제도주의: 국제기구는 정보 제공과 거래비용 감소를 통해 협력을 촉진한다. 키워드는 협력, 제도, 절대이득이다.
현실주의: 국제기구는 국가 권력과 세력균형의 반영물에 가깝고, 국가는 상대이득을 중시한다. 키워드는 무정부성, 상대이득, 힘의 분포이다.
구성주의: 국제기구는 규범과 정체성을 형성·확산하며 행위자의 이해관계 자체를 바꿀 수 있다. 키워드는 규범, 사회화, 정체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마르크스주의는 국제기구를 중립적 협력기구로 보기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유지·확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본다.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장과 공고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은 그 관점에 부합한다.
② O: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기구가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감시와 반복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협력을 돕는다고 본다. 거래비용을 줄이고 정보를 제공하여 협력의 이익을 추구하게 한다는 설명은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국제기구를 통해 얻는 이익은 국가마다 동일하다"는 표현이다. 현실주의는 국제기구가 국가 간 힘의 분포를 반영한다고 보며, 국가들은 협력의 총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이 이익을 얻는지를 경계한다. 올바르게는 현실주의는 국제기구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고 상대이득의 차이를 중시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④ O: 구성주의는 국제기구가 기존 질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범과 행위자 정체성을 만들어 확산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국제사회에서 규칙과 규범의 사회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을 함께 보면 절대이득과 상대이득이 가장 큰 함정이다. 신자유제도주의는 국제기구가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현실주의는 협력 자체보다 그 협력의 이익 배분이 국가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더 민감하게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기구를 협력 촉진 장치로 설명하면 신자유제도주의, 규범 형성자와 사회화 기제로 설명하면 구성주의, 자본주의 질서의 재생산 장치로 설명하면 마르크스주의, 힘의 분포 반영물과 상대이득 문제로 설명하면 현실주의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신자유제도주의는 협력과 절대이득, 현실주의는 힘과 상대이득, 구성주의는 규범과 정체성,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질서 재생산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9. 유럽연합(EU) 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시기가 이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리스본(Lisbon) 조약
(나)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
(다) 암스테르담(Amsterdam) 조약
(라)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마) 니스(Nice) 조약

① (나) → (다) → (가) → (라) → (마)
② (나) → (다) → (마) → (라) → (가)
③ (라) → (나) → (마) → (다) → (가)
④ (라) → (나) → (다) → (마) → (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EU 발전 과정의 핵심 조약과 단일유럽의정서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1. (라) 단일유럽의정서 - 1986년 채택으로 단일시장 완성 목표를 제도화한 단계이다.
2.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 1992년 체결로 유럽연합의 공식 출범 기반을 마련한 단계이다.
3. (다) 암스테르담 조약 - 1997년 체결로 마스트리히트 이후 제도와 정책 영역을 보완한 단계이다.
4. (마) 니스 조약 - 2001년 체결로 동유럽 확대를 앞두고 의사결정 구조를 조정한 단계이다.
5. (가) 리스본 조약 - 2007년 서명으로 기존 조약 체계를 다시 정비한 단계이다.

왜 이 순서: 단일유럽의정서가 단일시장 통합을 먼저 진전시키고, 그 뒤 마스트리히트가 EU 틀을 세우며, 이후 암스테르담과 니스가 제도를 보완한 다음 리스본이 최종적으로 구조를 재정비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나)→(다)까지는 맞지만 그 다음 순서가 틀리다. 틀린 부분은 '(가)→(라)→(마)'이다. 올바르게는 단일유럽의정서인 (라)가 가장 먼저 와야 하므로 '(라)→(나)→(다)→(마)→(가)'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나)→(다)→(마)→(라)→(가)'이다. 니스 조약보다 단일유럽의정서가 훨씬 이르므로 '(마)→(라)'가 아니라 '(라)→(나)→(다)→(마)→(가)'가 맞다.
3번: X. 처음의 '(라)→(나)'는 맞지만 이후가 틀리다. 틀린 부분은 '(마)→(다)'이다. 암스테르담 조약이 1997년, 니스 조약이 2001년이므로 올바르게는 '(라)→(나)→(다)→(마)→(가)'이다.
4번: O. 단일유럽의정서(1986)→마스트리히트 조약(1992)→암스테르담 조약(1997)→니스 조약(2001)→리스본 조약(2007)의 순서로 배열되어 정확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암스테르담 조약과 니스 조약의 선후, 그리고 단일유럽의정서와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선후를 뒤섞으면 틀리기 쉽다. 특히 리스본 조약이 가장 최근이라는 점은 비교적 잘 기억하지만, 그 앞 단계의 1986-1992-1997-2001 배열에서 실수가 자주 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U 통합사는 단일유럽의정서로 단일시장 가속, 마스트리히트로 EU 출범, 암스테르담과 니스로 제도 보완, 리스본으로 체계 재정비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먼저 가장 이른 단일유럽의정서와 가장 늦은 리스본 조약을 고정하면 중간 순서가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단마암니리 순서가 아니라 의정서부터 시작하는 라-나-다-마-가의 흐름이 EU 조약 연표의 핵심이다.

NoteBase

문 10.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M&A형 FDI는 해외시장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를 인수 · 합병해서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② 투자유치국에서 노동을 직접 고용하고, 투자유치국 정부에 세금을 지불하고, 투자유치국 시장의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③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자, 주식배당 등 투자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지칭한다.

④ Greenfield형 FDI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와 생산시설을 새롭게 설립하여 생산하는 방식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구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대표 방식인 M&A형과 Greenfield형의 의미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해외직접투자는 해외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나 지배권 확보를 전제로 현지에서 생산과 경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투자이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영권 확보 없이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수익을 얻는 투자이다.
M&A형 FDI는 기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진출하는 방식이고, Greenfield형 FDI는 현지에 새로운 기업과 생산시설을 세워 처음부터 진출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M&A형 FDI는 해외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회사를 인수·합병하여 그 기업을 통해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므로 옳다.
2번 O: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에서 노동을 직접 고용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현지 생산과 경쟁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옳다.
3번 X: 틀린 부분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자, 주식배당 등 투자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이다. 이는 해외직접투자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해외직접투자는 경영 참여나 지배권 확보를 수반하면서 현지 기업 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투자이다.
4번 O: Greenfield형 FDI는 기존 기업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사와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생산하는 방식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3번은 해외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의 차이를 뒤바꿔 놓은 선지이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자·배당 수익"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 성격이라는 점을 바로 떠올려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투자자가 경영권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관여하는지를 본다. 직접 관여하면 FDI이고, 수익증권 보유만으로 이자·배당을 얻는 구조이면 포트폴리오 투자이다. 그다음 기존 기업을 사들이면 M&A형, 새로 설립하면 Greenfield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FDI는 경영 참여와 현지 생산, 포트폴리오 투자는 배당·이자 수익, M&A는 인수, Greenfield는 신설이다.

NoteBase

문 1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냉전 종식 후 NATO의 존폐 여부와 미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으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리즘 등 안보문제 발생이 NATO의 존속과 역할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② 1990년대 발칸반도 위기 시 NATO는 외부군사 개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러시아의 반대 속에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속했던 대다수 동유럽 국가들을 순차적으로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③ NATO의 핵심 조항은 집단안보 조항으로, 특정 회원국이 무장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은 지역 내 안보 유지와 복구를 위해 공격당한 회원국을 도와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④ 제2차 세계대전 후 구(舊)소련 주도의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NATO의 창설 시점과 목적, 냉전 후 역할 확대, 집단방위 조항의 의미를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NATO는 1949년 북대서양조약에 따라 창설된 집단방위 동맹이다. 냉전기에는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이 중심이었고, 냉전 후에는 발칸 개입, 동유럽 확대, 대테러와 비확산 대응 등으로 역할이 확장되었다.
바르샤바조약기구는 1955년에 결성되었으므로 NATO가 그 조직에 대응해 창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냉전 종식 뒤 NATO의 존속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실제로 있었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리즘, 지역분쟁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이 부각되면서 NATO는 해체되지 않고 기능과 임무를 넓혀 갔다.

② O
1990년대 발칸반도 위기에서 NATO는 보스니아와 코소보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역외 행동 범위를 넓혔다. 이후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시작으로 과거 바르샤바조약기구 소속 동유럽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가입한 것도 맞다.

③ O
이 선지는 북대서양조약 제5조의 핵심 취지를 설명한다.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다른 회원국들이 안보 회복을 위해 지원한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말한 것이므로 옳다. 다만 지원 방식은 각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라는 점이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해"이다. NATO는 1949년에 먼저 창설되었고, 바르샤바조약기구는 그보다 뒤인 1955년에 결성되었다. 올바르게는 NATO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팽창에 대한 서방의 집단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되었고, 바르샤바조약기구는 그 뒤 NATO 등에 대응해 만들어졌다.

오답 포인트

4번은 냉전기 동맹 구도를 알고 있더라도 창설의 선후관계를 뒤집으면 쉽게 틀린다.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함께 외우면서도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를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냉전 동맹 문제는 먼저 창설 연도와 선후관계를 확인하면 빠르게 정리된다. NATO는 1949년, 바르샤바조약기구는 1955년이라는 순서를 잡아 두면 창설 목적과 대응 관계를 헷갈리지 않게 된다.

암기 포인트

NATO 1949 선창설, 바르샤바조약기구 1955 후대응이라는 구조이다.

NoteBase

문 12. 지역통합 이론 중 모라브칙(Moravcsik)의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liberal intergovernment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유럽연합의 회원국 정부는 합리적으로 행위한다고 인식한다.
ㄴ. 유럽통합 진행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회원국의 정책선호가 국내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ㄷ. 유럽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 국가의 국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한다고 주장한다.
ㄹ. 국내 정치 영역에서 발생하는 국가선호의 형성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고, 국가가 통합을 둘러싼 전략적 협상을 주도한다고 강조하는 점에서 현실주의적인 이론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모라브칙의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가 국가선호 형성, 국가 간 협상, 제도 선택을 통해 유럽통합을 설명한다는 점을 묻는다.

핵심 정리

- 모라브칙의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는 회원국 정부를 합리적 행위자로 본다.
- 자유주의 요소는 국가선호가 국내 집단과 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 점에 있다.
- 정부간주의 요소는 통합의 진전이 회원국 정부 간 전략적 협상의 결과라고 보는 점에 있다.
- 초국가주의처럼 국가가 일방적으로 약화된다고 보기보다, 국가는 이익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화를 선택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①은 ㄱ, ㄴ만을 묶은 조합이다. ㄱ은 회원국 정부를 합리적 행위자로 본다는 점에서 옳고, ㄴ도 국가선호가 국내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옳다.
- 그러나 ㄹ도 옳으므로 ①은 옳은 설명만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틀린 표현은 "ㄱ, ㄴ만"이다. 올바르게는 "ㄱ, ㄴ, ㄹ"이다.

② X
- ②는 ㄷ, ㄹ의 조합이다. ㄹ은 국내 정치 영역의 선호 형성에서는 자유주의적이고, 통합을 둘러싼 국가 간 전략적 협상에서는 정부간주의적이라는 설명이므로 옳다.
- 반면 ㄷ의 "유럽통합 참여가 국가의 국력과 자율성을 약화한다"는 부분은 틀리다. 모라브칙은 국가가 이익을 계산해 통합과 제도화를 선택한다고 본다.
- 틀린 표현은 "약화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국가가 이익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통합과 제도화를 선택한다"이다.

③ O
- ③은 ㄱ, ㄴ, ㄹ의 조합이다. ㄱ은 국가의 합리성, ㄴ은 국내정치에 의한 국가선호 형성, ㄹ은 국가 간 전략적 협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모두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와 일치한다.
- 따라서 ③이 옳은 설명만 모두 고른 선택지이다.

④ X
- ④는 ㄱ, ㄷ, ㄹ의 조합이다.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조합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은 ㄷ의 "국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국가는 통합을 통해 선호를 관철하고 합의를 제도에 묶어 신뢰성을 높이려 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함정은 ㄹ의 "현실주의적" 또는 "전략적 협상"이라는 표현을 보고 곧바로 국가 약화나 초국가주의와 연결하는 데 있다. 모라브칙은 협상의 장을 국가 간 수준에 두지만, 그 전제는 국내정치에 의해 형성된 국가선호와 합리적 정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모라브칙은 "국내정치에서 선호 형성 → 국가 간 협상 → 제도로 합의 고정"의 3단계로 판단한다. 국내 선호 형성과 정부 간 전략적 협상이 함께 나오면 정답 가능성이 높고, 통합이 국가를 자동으로 약화시킨다는 진술은 오답으로 본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모라브칙 = 국내선호 형성 + 합리적 국가 간 협상 + 제도는 신뢰성 확보 장치이다.

NoteBase

문 13. 종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여 세계체제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② 프레비시(Prebisch)는 종속 구조의 탈피를 위해 사회주의로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③ 후진국의 경제발전은 중심부와 주변부로 구성되는 세계 자본주의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④ 카르도소(Cardoso)는 주변부의 국제체계 편입으로 종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종속이론의 핵심 주장과 대표 학자별 입장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프레비시: 중심부-주변부 구조 — 1차 산품 수출국은 교역조건 악화로 불리해지므로 수입대체산업화와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프랑크: 저발전의 발전 — 후진성은 내부 결핍이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편입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본다.
카르도소: 종속적 발전 — 국제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도 일정한 산업화와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월러스틴: 세계체제론 —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의 위계적 분업 구조 속에서 세계경제를 파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근대화이론은 모든 사회가 서구식 발전 단계를 따라간다고 보지만, 종속이론은 저발전이 세계 자본주의 구조에서 생긴다고 비판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뒤에 세계체제론으로 확장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사회주의로의 전환 필요성"이다. 프레비시는 중심부-주변부 구조와 교역조건 악화를 비판하면서 수입대체산업화와 국가 주도 발전전략을 제시한 인물이지, 종속 탈피의 해법을 사회주의 전환으로 단정한 인물로 보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프레비시는 종속 구조의 탈피를 위해 수입대체산업화와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주장하였다"가 된다.

③ O
종속이론은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각국 내부 요인만이 아니라 중심부와 주변부로 조직된 세계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파악한다. 후진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고 보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O
카르도소는 종속 상태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보다 국제체제 편입 속에서도 일정한 산업화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종속적 발전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주변부의 국제체계 편입으로 종속적 발전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프레비시와 프랑크, 카르도소의 입장을 한 덩어리로 외우면 ② 같은 선지에 흔들리기 쉽다. 급진적 종속이론은 자본주의 세계체제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지만, 프레비시는 구조개혁과 산업화 전략을 강조했고 카르도소는 종속적 발전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종속이론 문항은 먼저 학자 이름을 중심으로 대표 키워드를 연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프레비시는 중심부-주변부와 수입대체산업화, 프랑크는 저발전의 발전, 카르도소는 종속적 발전 가능성으로 연결하면 오답을 쉽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프레비시=중심부-주변부·수입대체산업화, 프랑크=저발전의 발전, 카르도소=종속적 발전이다.

NoteBase

문 14. 유럽연합의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상임의장, 회원국 정부수반, EU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된다.
ㄴ. 유럽집행위원회는 입법안을 제안하며 정책집행을 책임진다.
ㄷ. 유럽의회는 회원국 의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 또는 총리가 승인한 의원들로 구성된다.
ㄹ.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과 조약을 해석하고 판결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럽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의 구성과 기능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럽이사회는 회원국 정상급이 모여 EU의 일반 정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관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부로서 입법안을 제안하고 정책 집행을 담당한다.
유럽의회는 회원국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회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법과 조약을 해석하여 회원국과 EU 기관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선지별 해설

① X: ①은 ㄱ, ㄴ, ㄷ을 옳다고 본 조합이다. ㄱ과 ㄴ은 맞지만 ㄷ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회원국 의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 또는 총리가 승인한 의원들"이다. 실제로는 유럽의회 의원은 회원국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② O: ②는 ㄱ, ㄴ, ㄹ을 옳다고 본 조합이다. 유럽이사회는 상임의장, 회원국 정부수반, EU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유럽집행위원회는 입법안 제안과 정책 집행을 맡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EU법과 조약을 해석하고 판결하므로 맞다.
③ X: ③은 ㄱ, ㄷ, ㄹ을 옳다고 본 조합이다. ㄷ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유럽의회는 각국 의회가 뽑는 간접대표기관이 아니라 EU 시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된다. 올바르게는 ㄷ을 빼고 ㄴ을 넣은 ㄱ, ㄴ, ㄹ 조합이다.
④ X: ④는 ㄴ, ㄷ, ㄹ을 옳다고 본 조합이다. ㄷ이 틀린 데다 ㄱ을 빠뜨린 점도 잘못이다. 유럽이사회의 구성은 맞는 진술이므로 포함되어야 하고, 유럽의회 구성에 관한 ㄷ은 제외되어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를 모두 "대표기관" 정도로만 외우면 구성 방식이 섞인다. 특히 유럽의회를 회원국 의회가 보내는 대표단으로 착각하거나, 유럽이사회를 단순한 각료회의와 혼동하면 ㄷ의 오류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관 문제는 먼저 누가 그 기관을 구성하는지와 무엇을 하는지를 분리해 본다. 정상급이 모이면 유럽이사회, 입법 제안과 정책 집행이면 집행위원회, 직접선거 의원이면 유럽의회, EU법 해석과 판결이면 유럽사법재판소로 판단하면 조합형 문항을 안정적으로 풀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정상은 유럽이사회, 제안·집행은 집행위, 직접선거는 의회, 해석·판결은 사법재판소이다.

NoteBase

문 15. 난민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에 따르면 난민은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가 우려되어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②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시간적 제한을 해제하고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③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1960년대 발생한 대량난민사태 이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수한 측면에 관한 협약」(OAU협약)을 마련하였다.

④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인 1998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아직 독립적인 「난민법」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난민 국제보호체제의 기본 문서와 한국 난민법제의 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1951년 협약의 원래 한계, 1967년 의정서의 보완, 한국의 협약 가입 시점과 국내 독립 난민법 시행 시점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다.

용어 풀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1951년 협약의 시간적 한계를 제거하여 적용 범위를 넓힌 문서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1951년 난민협약의 원래 정의에는 1951년 1월 1일 이전 사건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 다만 1967년 의정서는 그 시간적 제한을 없애 새로운 난민 상황에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제협약 가입 시점과 국내 이행법 시행 시점은 다르다. 한국은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1992년 12월 가입하였고, 독립된 난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1951년 난민협약의 원래 정의는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라는 시간적 한계를 두고, 박해 사유와 국적국 보호 불가능 또는 보호 거부를 요건으로 한다.
② O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1951년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시간적 제한을 제거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③ O
아프리카단결기구는 1960년대 아프리카의 대량난민 상황을 배경으로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수한 측면에 관한 협약」을 마련하였다.
④ X
틀린 표현은 '1998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아직 독립적인 「난민법」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독립된 「난민법」도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국제협약 가입 시점과 국내 이행법 제정·시행 시점을 한 덩어리로 외웠을 가능성이 높다. ④는 1998년이라는 잘못된 가입 연도와 난민법 미시행이라는 현재와 다른 서술을 한 선지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난민 관련 문항은 먼저 1951년 협약, 1967년 의정서, 지역협약, 국내 이행법을 층위별로 나눈 뒤 연도와 기능을 붙여 판단하면 된다. 협약은 국제적 정의와 보호원칙, 의정서는 시간적 한계 제거, 국내 난민법은 국내 절차와 처우 규율이라는 구도로 보면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1951 협약은 원래 한계가 있고, 1967 의정서는 그 한계를 풀며, 한국 난민법은 2013년부터 시행된다는 흐름이다.

NoteBase

문 16. 영 · 미권 지정학에 속하지 않는 이론은?

① 라첼(Ratzel)의 정치지리학
② 맥킨더(Mackinder)의 심장지역이론
③ 머핸(Mahan)의 해양세력이론
④ 스파이크만(Spykman)의 주변지역이론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영·미권 지정학과 대륙권 지정학을 대표 학자와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라첼(Ratzel): 독일 정치지리학의 대표 학자로, 국가를 유기체처럼 파악하는 대륙권 지정학의 출발점에 놓인다.
맥킨더(Mackinder): 영국 학자로, 유라시아 내륙의 지배력을 강조한 심장지역이론을 제시하였다.
머핸(Mahan): 미국 해양전략사상가로, 제해권과 해군력의 우위를 강조한 해양세력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스파이크만(Spykman): 미국 학자로, 유라시아 연안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주변지역이론을 제시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라첼의 정치지리학은 독일에서 형성된 대륙권 지정학 계열이다. 따라서 영·미권 지정학에 속하지 않는 이론이라는 발문 조건에 맞는다.

② X
맥킨더의 심장지역이론은 영국 지정학의 대표 이론이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영·미권 지정학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영·미권 지정학에 속하는 이론이다.

③ X
머핸의 해양세력이론은 미국의 해양전략 사상을 대표한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영·미권 지정학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영·미권 지정학에 속하는 이론이다.

④ X
스파이크만의 주변지역이론은 미국 지정학의 대표 이론이다. 틀린 부분은 이 선지를 영·미권 지정학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점이다. 올바르게는 영·미권 지정학에 속하는 이론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라첼이 정치지리학자라는 점만 보고 지정학 바깥의 인물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이론 명칭보다 학자의 사상 계보와 국가 전통이며, 라첼은 영·미권이 아니라 독일 대륙권 계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먼저 학자의 국적과 사상 계보를 묶어서 판단하면 된다. 독일의 라첼은 대륙권, 영국의 맥킨더와 미국의 머핸·스파이크만은 영·미권으로 정리하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라첼=독일 정치지리학, 맥킨더=심장지역, 머핸=해양세력, 스파이크만=주변지역이다.

NoteBase

문 17. 중국 시진핑 정부가 제시한 대외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권평등, 문명 간 대화, 상생협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인류운명공동체' 비전을 제시했다.
ㄴ. 국가 간 관계를 제로섬 게임 관계에서 윈-윈 관계로 대체하기 위한 보편적 규범을 마련하고 그러한 규범을 지향하는 '신형국제관계'를 제안했다.
ㄷ.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다른 국가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화평굴기를 주창했다.
ㄹ. 중국의 영향력을 주변국과 그 너머로 연결하는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인 일대일로를 추진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진핑 정부의 대표 대외정책 구호와 그 이전 시기 중국 대외담론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류운명공동체: 국가 간 상호의존과 공동이익을 강조하는 시진핑 시기의 글로벌 거버넌스 비전이다.
신형국제관계: 제로섬 대신 상호존중, 협력, 윈윈을 지향하는 시진핑 시기의 국가관계 구상이다.
화평굴기: 중국의 부상을 위협이 아닌 평화 발전으로 설명한 후진타오 시기 담론이다.
일대일로: 육상·해상 연결망과 인프라 투자로 중국의 대외 영향력을 확장하는 시진핑 시기의 대외전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과 ㄴ은 시진핑 정부의 대표 구호이므로 맞다. 틀린 표현은 ㄷ을 함께 옳다고 본 부분이다. 화평굴기는 시진핑 정부가 새로 제시한 대외정책이 아니라 후진타오 시기에 중국의 부상을 설명하던 담론이다. 올바르게는 1번에서 ㄷ을 빼고 ㄹ을 넣어야 한다.

2번: O
ㄱ의 인류운명공동체, ㄴ의 신형국제관계, ㄹ의 일대일로는 모두 시진핑 정부 대외정책의 핵심 표어와 구상이다. ㄱ은 주권평등, 대화, 협력, 평화적 분쟁 해결을 강조하고, ㄴ은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를 지향하며, ㄹ은 광범위한 연결·인프라 구상이다.

3번: X
ㄱ과 ㄹ은 맞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ㄷ을 시진핑 정부의 정책으로 넣은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3번의 ㄷ은 제외되어야 하며, 시진핑 정부 관련 조합은 ㄱ, ㄴ, ㄹ이다.

4번: X
ㄴ과 ㄹ은 맞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ㄷ의 화평굴기이다. 올바르게는 4번에서 ㄷ 대신 ㄱ이 들어가야 정답 조합이 된다.

오답 포인트

시진핑 시기의 새 구호와 후진타오 시기의 화평굴기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ㄷ을 쉽게 맞는 진술로 착각한다. "평화적 부상"이라는 표현은 중국 외교 전반의 이미지와 연결되지만, 시험에서는 어느 지도부의 대표 구호인지를 시기별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 외교 구호 문제가 나오면 먼저 시기 구분부터 한다. 인류운명공동체, 신형국제관계, 일대일로는 시진핑 시기이고, 화평굴기는 그 이전 시기의 담론으로 보면 정리가 된다.

암기 포인트

시진핑은 인류운명공동체·신형국제관계·일대일로이고, 화평굴기는 후진타오 시기이다.

NoteBase

문 18. 중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 및 입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반분열국가법

② 일국양제

③ 92공식(九二共識)

④ 타이베이 법안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중국의 대만정책 관련 개념과 다른 국가의 대만 관련 입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반분열국가법은 중국이 대만의 분리 독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법률로 제도화한 것이다.
일국양제는 하나의 중국 아래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 구상이다.
92공식(九二共識)은 양안관계에서 하나의 중국을 전제로 한 정치적 합의 틀로 이해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반분열국가법은 중국이 대만 독립 움직임을 억제하고 통일 원칙을 법률 형태로 명문화한 것이므로 중국의 대만정책과 직접 관련된다.

② O
일국양제는 중국이 대만 통일 구상에서 제시해 온 대표적 원칙이다. 하나의 중국 아래 각기 다른 체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대만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③ O
92공식(九二共識)은 양안관계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정치적 기초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연결되므로 중국의 대만 관련 입장에 해당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이것을 중국의 대만정책이나 입장과 관련된 용어로 보는 점이다. 타이베이 법안은 중국의 정책이 아니라 미국이 대만의 국제적 공간과 대외관계를 지원하는 방향의 입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반분열국가법·일국양제·92공식은 모두 중국 또는 양안관계에서 나온 용어인데, ④는 '타이베이'라는 지명 때문에 중국 측 정책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용어의 출처가 미국 입법이라는 점이 결정적 구별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출처를 먼저 본다. 중국의 통일 원칙, 대만 독립 억제 법률, 양안 정치 합의는 중국의 대만정책 관련 용어이고, 미국 의회가 만든 대만 지원 법안은 중국의 대만정책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중국 대만정책은 반분열국가법·일국양제·92공식이고, 타이베이 법안은 미국 입법이다.

NoteBase

문 19.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의 무력에 의한 국제정치 현상변경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2008년 조지아(그루지야) 침공

② 2010년 벨라루스 침공

③ 2014년 크림반도 병합

④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가 무력을 사용해 국제정치의 현상 변경을 시도한 대표 사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 핵심 사실 1: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주변 지역에서 군사력을 사용해 국경과 세력권의 현상 변경을 시도한 사례를 보였다.
- 핵심 사실 2: 대표 사례로 2008년 조지아 전쟁, 2014년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거론된다.
- 판단에 중요한 조건: 선지가 실제 러시아의 무력 사용 사례인지, 그리고 연도와 대상 지역이 역사적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핵심 개념

- 현상변경은 기존의 영토 질서나 세력 균형을 무력이나 강압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 적용 요건: 특정 사건이 러시아의 실제 군사력 행사였고, 그 결과 영토 통제나 국제질서의 변경을 수반해야 한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제시된 사건이 실제로 존재한 러시아의 무력 행사인지와 그 사건이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으로 연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핵심은 연도, 대상 지역, 무력 사용 여부의 일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2008년 러시아는 조지아와 전쟁을 벌이며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의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사례에 해당한다.

② X
벨라루스에 대해 2010년 러시아가 직접 침공한 사건은 대표적 역사 사실로 존재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2010년 벨라루스 침공'이고, 올바르게는 벨라루스 침공은 이 맥락의 사례가 아니며 대표 사례는 2008년 조지아, 2014년 크림반도, 2022년 우크라이나이다.

③ O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방적으로 편입한 사건으로, 무력을 배경으로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을 초래한 대표 사례이다.

④ O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규모 군사력 사용을 통해 주권국가의 영토 질서를 바꾸려 한 사건이다. 따라서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의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러시아와 밀접한 국가라는 인상만으로 벨라루스를 사례에 끼워 넣으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의 함정은 러시아의 영향권 국가와 러시아의 실제 무력 침공 대상을 혼동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러시아의 현상변경 사례를 묻는 문제는 사건명을 연도와 지역으로 바로 대조해 실제 군사행동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영토 병합이나 침공처럼 질서 변경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조지아 2008, 크림 2014, 우크라이나 2022는 러시아 무력 현상변경의 대표 사례이고 벨라루스는 여기에 넣지 않는다.

NoteBase

문 20. 「베스트팔렌 조약」(Treaties of Westphalia, 1648)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0년 종교전쟁을 마무리하는 평화조약이었다.

② 네덜란드는 독립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지 못했다.

③ 외부 간섭 없이 자기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④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은 가톨릭 국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베스트팔렌 조약의 핵심 내용인 30년 전쟁 종결, 네덜란드·스위스의 독립 승인, 주권 원리,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권리 관계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베스트팔렌 조약은 1648년 30년 전쟁을 종결하고 유럽의 영토 주권과 종교적 공존 원리를 제도화한 평화조약이다.
핵심 차이축은 '무엇이 실제 합의 내용이었는가'이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모두 독립을 승인받았고, 각 정치체는 외부 간섭 없이 자국 영토를 다스릴 권리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근대 주권국가 질서가 강화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30년 전쟁을 마무리한 일련의 평화조약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신성로마제국 내부의 종교·권력 갈등과 유럽 전반의 전쟁을 종결한 조약이라는 점에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스위스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네덜란드뿐 아니라 스위스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독립을 승인받았다. 따라서 '네덜란드와 스위스 모두 독립국으로 인정받았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베스트팔렌 체제는 각 통치권력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국 영토를 지배한다는 주권 원리의 강화와 연결된다. 현대적 의미의 주권 개념을 완성된 형태로 곧바로 만든 것은 아니더라도, 국제정치사에서는 그 출발점으로 이해한다.

④ O
베스트팔렌 조약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세력의 법적·정치적 공존 질서를 재확인하고 확장한 조약이다. 특히 기존의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배제되었던 칼뱅파까지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프로테스탄트 세력의 지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네덜란드 독립 승인만 기억하고 스위스 독립 승인을 빠뜨리기 쉽다. ②는 네덜란드는 맞게 쓰고 스위스만 틀리게 바꾸어 부분적으로 맞는 문장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베스트팔렌 조약 문제가 나오면 30년 전쟁 종결, 네덜란드·스위스 독립 승인, 영토주권 강화, 종교적 공존 질서 확립의 네 축을 먼저 대조하면 된다. 이 네 축 중 하나를 부정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선지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암기 포인트

베스트팔렌 조약 = 30년 전쟁 종결 + 네덜란드·스위스 독립 승인 + 주권 원리 강화이다.

NoteBase

문 21. 투키디데스(Thucydides)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전쟁 당사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가)의 부상과 그에 따라 (나)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① (가): 아테네, (나): 스파르타
② (가): 그리스, (나): 페르시아
③ (가): 카르타고, (나): 로마
④ (가): 스파르타, (나): 아테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그 전쟁 당사국을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의 세력 부상과 그로 인해 스파르타가 느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아테네: 델로스 동맹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한 해상 강국이다.
스파르타: 기존 패권을 지키려 한 육상 강국으로, 아테네의 팽창을 위협으로 인식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를 아테네, (나)를 스파르타로 연결한 것은 투키디데스의 대표적 설명과 일치한다. 아테네의 부상이 원인이었고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취지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가)=그리스, (나)=페르시아'이다. 투키디데스의 설명은 그리스 전체와 페르시아의 관계가 아니라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의 두려움을 말한다. 올바르게는 '(가)=아테네, (나)=스파르타'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가)=카르타고, (나)=로마'이다. 이는 포에니 전쟁의 당사국 조합에 가깝고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무관하다. 올바르게는 '(가)=아테네, (나)=스파르타'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가)=스파르타, (나)=아테네'이다. 전쟁의 원인으로 제시된 것은 스파르타의 부상이 아니라 아테네의 부상이며, 두려움을 느낀 쪽은 아테네가 아니라 스파르타이다. 올바르게는 '(가)=아테네, (나)=스파르타'이다.

오답 포인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모두 그리스 폴리스로 알고 있으면 주체와 객체를 뒤집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누가 부상했고 누가 두려워했는지를 바꾸어 읽게 만드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키디데스의 전쟁 원인론이 나오면 먼저 '세력 전이의 주체가 누구인가'와 '그 상승을 두려워한 기존 강대국이 누구인가'를 짝지어 판단하면 된다. 이 문장에서는 아테네의 부상, 스파르타의 두려움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투키디데스 함정의 원형은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의 두려움이다.

NoteBase

문 22. 동·서독 통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1974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했지만 상주대표부는 설치하지 않았다.
ㄴ. 분단시기 서독은 동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통일의식 고취를 위해 정치교육을 실시했다.
ㄷ. 1990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만 참여한 회담에서 독일통일에 합의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ㄹ.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불법행위 청산 작업, 재산권 문제, 통일비용 문제, 동·서독 주민 간 갈등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서독 기본조약, 2+4 회담, 통일 이후 통합 문제를 연도와 참여 주체까지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서독 기본조약은 1972년에 체결되어 상호 관계를 제도화한 합의이고, 1974년에는 상주대표부가 설치되었다.
2+4 조약은 동독·서독과 미국·영국·프랑스·소련이 함께 참여한 독일통일의 국제적 최종 해결이다.
독일 통일 이후에는 재산권 반환, 과거 불법행위 청산, 통일비용 부담, 동·서독 주민 간 사회·경제적 갈등이 핵심 통합 과제로 나타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ㄱ이 포함된 점이다. 틀린 표현 → '1974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했지만 상주대표부는 설치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했고, 1974년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였다.' ㄴ은 서독이 동독 이해 증진과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맞다.
② X
ㄱ과 ㄷ이 틀리므로 조합 전체가 틀리다. 틀린 표현 →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만 참여한 회담' 올바르게는 '동독과 서독을 포함한 2+4 회담'이다. 또한 기본조약도 1974년 체결이 아니라 1972년 체결이다.
③ O
ㄴ과 ㄹ이 모두 맞으므로 옳은 조합이다. 서독은 분단기 동안 동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했고, 통일 후에는 불법행위 청산, 재산권 문제, 통일비용, 주민 간 갈등이 실제 통합 문제로 나타났다.
④ X
ㄹ은 맞지만 ㄷ이 틀리므로 조합 전체는 틀리다. 틀린 표현 → '4개국만 참여' 올바르게는 '동독·서독을 포함한 6자 틀의 2+4 회담에서 독일통일에 합의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오답 포인트

기본조약의 체결 시점 1972년과 상주대표부 설치 시점 1974년을 뒤섞거나, 독일통일 협상을 4개국 회담으로만 기억하면 ㄱ과 ㄷ을 맞는 진술처럼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일 통일 문제는 먼저 연도와 참여 주체를 확인하면 된다. 기본조약은 1972년, 상주대표부는 1974년, 통일 외교는 동·서독이 포함된 2+4 회담이라는 기준으로 선지를 걸러내면 된다.

암기 포인트

기본조약 1972, 상주대표부 1974, 통일 외교는 2+4, 통일 뒤 쟁점은 비용·재산·청산·갈등이다.

NoteBase

문 23.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95년 공식 합의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는 아세안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경제문제에만 초점을 두었다.

②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일본은 위기극복을 위하여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제안하였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였다.

③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출범과정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미국을 포함한 비(非)동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끝까지 반대했다.

④ 미국은 2009년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을 체결하고, 2010년 미국 영토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출범 연도, 참가 범위, 의제 성격을 서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SEM은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급 대화체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협력을 함께 다룬다.
AMF는 1997년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지역 금융안전망 구상이며, 미국과 IMF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EAS는 2005년 ASEAN+3에 호주·뉴질랜드·인도를 더한 16개국으로 출범했고, 미국과 러시아는 2011년에 합류했다.
미국은 2009년 TAC에 가입한 뒤 2010년 뉴욕에서 ASEAN 정상들과 제2차 ASEAN-미국 정상회의를 열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1995년 공식 합의"와 "경제문제에만 초점"이다. ASEM의 첫 정상회의는 1996년에 열렸고, 협력 범위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이었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ASEM은 1996년 출범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의제를 함께 다루었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미국은 이를 지지하였다"이다. 일본은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때 AMF 구상을 제안했지만 미국과 IMF는 조건성 약화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반대했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일본은 AMF를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반대했다"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미국을 포함한"과 "끝까지 반대했다"이다. EAS 출범 논의의 핵심은 호주·뉴질랜드·인도 포함 여부였고, 미국은 애초 창설 멤버가 아니라 2011년 제6차 EAS에서 뒤늦게 합류했다. 또한 2005년 출범 EAS는 실제로 호주·뉴질랜드·인도를 포함한 16개국 체제였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EAS는 2005년 ASEAN+3에 호주·뉴질랜드·인도를 더해 출범했고 미국은 2011년에 참가했다"이다.
④ O: 미국은 2009년 TAC에 가입했고, 2010년 뉴욕에서 ASEAN 정상들과 제2차 ASEAN-미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연도와 사건 연결이 모두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은 지역협력체 이름만 익힌 수험생이 연도와 참가국 범위를 뒤섞도록 만든 문제이다. 특히 ASEM의 다의제 성격을 "경제만"으로 축소하거나, AMF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을 지지로 바꾸거나, EAS 출범 시점의 미국 참여를 소급해서 넣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아시아 지역협력 문제는 먼저 출범 연도, 둘째 참가국 범위, 셋째 의제 성격을 차례로 대조하면 정리가 된다. 선지에 "만", "끝까지", "지지"처럼 방향을 뒤집는 단정어가 들어가면 실제 연혁과 입장을 바로 맞춰 본다.

암기 포인트

ASEM은 1996년 다의제, AMF는 미국 반대, EAS는 2005년 16개국 출범, 미국은 2011년 EAS 합류이다.

NoteBase

문 24. 탈냉전기 국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to Asia)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였다.

②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2008년 G20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동이 있었고, G20 정상회담이 처음 개최되었다.

③ 2009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첫 번째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하였다.

④ 미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탈냉전기 국제질서의 주요 제도 변화와 국가 간 협의체의 연도, 명칭, 참여국 구성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은 미국이 외교·안보·경제 차원에서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비중을 높인 정책이다.
G20은 기존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협의체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되었다.
BRIC은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4개국 협의체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합류한 뒤 BRICS가 되었다.
RCEP와 TPP는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협정이지만 참여국 구성이 서로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오바마 정부는 Pivot to Asia, Rebalance to Asia라는 표현으로 아시아 중시 전략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아시아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였다.
② O: G20은 원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체로 존재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첫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③ X: 틀린 부분은 '2009년 베이징', '브릭스(BRICs)',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라는 표현이다. 첫 정상회담은 2009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BRIC 정상회담이었고, 참가국은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4개국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후 합류하였으므로 첫 회담을 BRICS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없다.
④ O: 미국은 RCEP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도 원래 TPP 참가국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선지의 진술은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신흥국 협의체라는 큰 범주만 기억하면 쉽게 속는 선지이다. BRIC과 BRICS의 명칭 차이, 첫 정상회담의 개최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합류 시점을 함께 기억하지 않으면 맞는 문장처럼 보이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탈냉전기 국제협의체 문제는 연도, 명칭, 참가국 수를 함께 묶어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BRIC은 4개국이 먼저이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합류 뒤 BRICS가 된다는 순서를 알면 ③ 같은 선지는 바로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BRIC은 4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합류 뒤 BRICS이다. G20은 2008년 금융위기 뒤 정상급으로 격상되었다.

NoteBase

문 25. 다음 중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1915 ~ 1916년 맥마흔–후세인 서한은 아랍이 대 오스만 제국과의 전투에 참전하는 대가로 아랍의 독립을 승인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ㄴ. 1917년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ㄷ. 1947년 말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두 지역인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였다.
ㄹ. 1948년 이스라엘–아랍국 전쟁 결과 이스라엘의 영토는 건국 시점보다 더 확장되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형성 과정에서 연도별 사건과 행위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맥마흔-후세인 서한은 영국이 오스만 제국에 맞선 아랍 봉기의 대가로 아랍 독립 지지를 약속한 교섭이다.
1917년 팔레스타인 점령은 영국군의 군사 점령과 군정 실시 단계이다.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안의 주체는 영국이 아니라 유엔 총회이다.
1948년 이스라엘-아랍국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초기 배정보다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ㄱ, ㄴ은 옳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두 지역인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1947년 유엔 총회가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결의하였고, 영국은 위임통치를 종료하며 철수하였다.
2번 O: ㄱ, ㄴ, ㄹ의 조합으로 모두 옳다. ㄱ은 맥마흔-후세인 서한의 취지에 부합하고, ㄴ은 1917년 영국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군정 실시를 가리키며, ㄹ은 1948년 전쟁 뒤 이스라엘 영토가 확대된 사실을 반영한다.
3번 X: ㄱ,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또 옳은 진술인 ㄴ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4번 X: ㄴ,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또 옳은 진술인 ㄱ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험생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1947년 분할의 주체이다. 분할안을 만든 것은 영국이 아니라 유엔이며, 영국은 위임통치 종료와 철수의 당사자였다. 1915~1916년 서한, 1917년 영국 점령, 1947년 유엔 분할안, 1948년 전쟁이라는 연표를 주체와 함께 묶어 두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동사 연표 문제는 연도만 보지 말고 사건의 주체를 함께 확인하면 정리가 된다. 1915~1916년은 영국-아랍 교섭, 1917년은 영국 점령, 1947년은 유엔 분할안, 1948년은 전쟁과 영토 확대라는 흐름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1915~1916년 맥마흔-후세인 서한, 1917년 영국 점령, 1947년 유엔 분할안, 1948년 전쟁 후 이스라엘 영토 확대이다.

NoteBase